

아베니다 데 마요, 사르수엘라의 거리

라우라 리나레스

‘아르헨티나 만세’와 ‘올레’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거리가 지극히 스페인적이라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여행을 많이 다녀본 이들은 아베니다 데 마요(Avenida de Mayo)와¹⁾ 스페인 마드리의 그란 비아(Gran Vía)가 매우 닮았다고 말한다. 적어도 그 두 거리는 분위기가 비슷하며, 대서양 아래로 두 세계를 이어주는 10,000킬로미터의 통로처럼 서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한다. 이는 1810년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지만 모국과 연결되어 있던 텃줄을 끊을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 상징적인 텃줄은 아르헨티나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10개의 구역, 즉 대통령궁에서 의회까지 이어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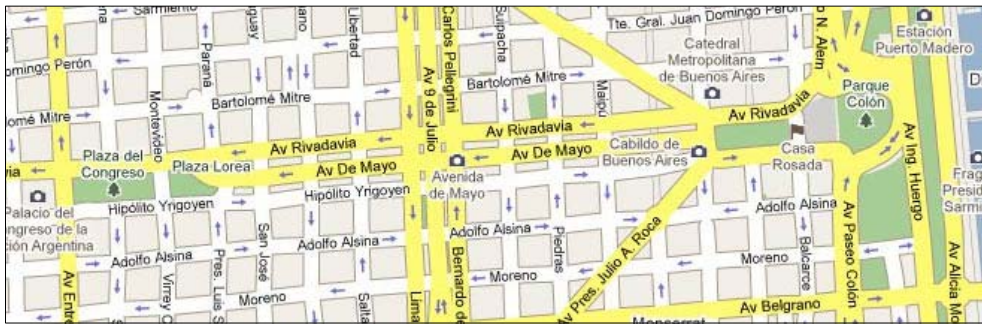
프로이드가 옳았다. 오이디푸스 신화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고, 그 지점에 아베니다 데 마요가 자리하고 있다. 그곳에 군대가 행진했고, 사르수엘라²⁾ 공연이 열렸으며, 많은 대통령들이 대통령궁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산물 카수엘라를 팔았으며, 의회 건물에는 하원 의사당과 상원 의사당이 있었고, 플라멩코 공연장에서는 춤을 추었다. ‘아르헨티나 만세’와 ‘올레’,³⁾ 이 두 단어 속에는 진정한 모순이 있다.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법률 1583호를 만들었을 때 품었던 생각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심장부에 마드리의 대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1) ‘5월 거리’라는 뜻—옮긴이.

2) 17세기 스페인에서 유래한 음악극. 마드리드 외곽에 있는 스페인 왕실 소유의 사르수엘라 궁전에서 처음으로 공연되었다는 이유로 이 이름을 갖게 되었다—옮긴이.

3) 올레(olé)는 스페인에서 투우 시합이 열릴 때 관객들이 호응하는 소리—옮긴이.



파리의 거리를 재현하는 것이었다. 때는 1884년이었고, 파리를 리모델링한 조르주 유진 오스망(1809~1891)을 경외하던 사르미엔토의 견해에 무게가 실렸다.

그래서 아베니다 데 마요는 토르쿠아토 데 알베아르 시장이 처음 계획을 세우고, 이후 페데리코 피네도 시장 시절인 1894년 7월 9일 프랑스타일을 뽐내며 첫선을 보였다. 대로에서는 횃불 행렬과 군대 행진,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대로를 만드는 데 든 1,400만 페소가 유용하게 쓰였다는 주장과 그 돈으로 수도망과 배수로를 정비해 19세기 중후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넘쳐났던 감염 진원지와 습지를 없애는 데 썼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측의 논쟁도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문화유산

“문화유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만들어질 건물들이 도시의 외양과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이익들을 조율해야만 하고, 유산을 보존하는 일과 건축의 진보와 도시 공간을 존중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효율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보존만을 중시하는 목소리 역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1997년 11월 20일자 신문 《클라린》의 사설. 이 사설을 읽으면 다음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다.”

대단했던 또 다른 논쟁은 아베니다 데 마요를 만들 때 리바다비아 가(온세, 파바이토, 플로레스, 플로레스타, 비야 루로, 리니에르스 지역을 지나 훨씬 멀리까지 뻗은 긴 거리)의 넓이를 확장해서 만들지, 혹은 리바다비아 가와 이폴리토 이리고엔 가(당시에는 빅토리아 가로 불림)가 지나가는 구역을 마치 케이크처럼 한 가운데로 잘라 만들지에 관한 것이었다. 부동산 수익의 면에서 더 유리한 두 번째 안이 선택되었다. 시 당국은 도로가 나는 곳의 모든 집을 몰수해 충분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되지만, 이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로가 만들어져 그 양쪽으로 지어질 집의 가치는 얼마나 더 클까?

그곳에 살던 여성인 도냐 이사벨 암스트롱 데 엘로르톤도의 일화는 유명해졌다. 그녀는 시의 고위관료보다 훨씬 영리했고, 도로를 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자기 농장 일부를 팔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시를 대법원에 고소했고, 승소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베니다 데 마요는 스페인 품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지역에 살던 스페인 출신 이민자 10만 명이 모든 것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향우회 회관과, 《엘 코레오 에스파뇰》, 《엘 가예고》, 《엘 안톤 페를레로》 등과 같은 신문사들을 그곳에 두었다. 곧 극장도 생겨났다. 지금은 사라진 마요 극장이 1893년 세워졌고, 아베니다 극장은 1908년 로페 데 베가의 작품, 〈복수 없는 처벌〉을 첫 공연으로 올리며 문을 열었다. 아베니다 극장은 사르수엘라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스페인 예술의 보루가 되었다.

마드리드에서 상당히 가까이 있는 사르수엘라 궁전은 주변에 사르사⁴⁾가 무성하며, 사냥용 오두막(pabellón de caza)와 숲이 있다.⁵⁾ 그곳은 과거에 국왕 부처와 왕자와 공주들이 가끔씩 쉬고 즐기러 가던 곳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또한 사르수엘라는 스페인어로 말하고 노래하는 일종의

4) 블랙베리 덩굴—웁건이.

5) 사르수엘라 궁은 원래 사냥 다닐 때 머무를 곳으로 건축되었다가 나중에 궁으로 변했다—웁건이.

오페라, 더 정확히는 징슈필(Singspiel)과 같은 장르를 지칭하는 단어기도 하다. 징슈필과 비슷한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합창에 대화가 섞여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구역

라스 루세스 구역(볼리바르 거리, 모레노 거리, 페루 거리, 알시나 거리로 둘러싸인 구역)은 그 이름을 예수회 사제들과 기자들한테 빚지고 있다.⁶⁾ 예수회 사제들은 1661년 5월 25일 그곳에 자리잡았다. 160년 후 1821년에 신문 《엘 아르고스》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본지(本紙)는 그 이름도 유명한 산 이그나시오 사원이 있는 구역을 ‘라스 루세스 구역’, 혹은 이와 의미가 동일한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곳에 라 유니온 초등학교와 공립 도서관이 세워졌고, 상호 교육 방법론으로 가르치는 센트랄 학교도 있다. 디자인 아카데미, 프랑스어 아카데미와 영어 아카데미도 있으며, 바로 이 구역에 대학도 세워졌다. 감사원 사무실들도 역시 이곳에 있다. 가장 최근에는 이곳에 모든 개인 자료들을 모아 만든 종합 기록보관소가 만들어졌다. 이 구역의 외양은 이곳의 내적 풍성함에 걸맞아야 한다. 그것이 힘들다면 적어도 보통 집이나 개인 건물 정도의 청결과 장식이라도 갖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이 마지막 구절은 1820년대 시 당국에 대한 매우 강한 비판이다).

아베니다 극장에서 첫 번째로 공연된 사르수엘라는 <라팔로마의 베르베나>였는데, 베르베나(verbena)라는 단어는 지금의 아베니다 데 마요에 매우 잘 어울리는 단어이다. 왜냐하면 베르베나는 약용 식물을 뜻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길거리 춤, 싸구려 물건과 군것질거리를 파는 상점과 장터 분위기가 넘치는 민중 축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6) 라스 루세스 구역의 스페인어는 ‘Manzana de las Luces’이다. ‘계몽주의 시대’(Age of Enlightenment)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표현이 ‘Siglo de las Luces’이다. 직역하면 ‘빛의 세기’인 셈이다. 바로 뒤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라스 루세스 구역에 교육 관련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라스 루세스 구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산 이그나시오’는 예수회의 창시자 이그나시오 로욜라를 가리킨다. 예수회는 가톨릭 교단 중에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옮긴이.

도서전

1975년에 시작된 도서전에는 매년 수십만 명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이 다녀간다. 일례로 2010년에는 120만 명이 다녀갔다. 사람들은 책 가격, 자신의 기분 상태, 각 부스별 판매자의 화술에 좌우되어 쇼핑 바구니에 셰익스피어, 애거사 크리스티, 자크 데리다, 『해리 포터』 등 이것저것 다양하게 담는다.

〈라팔로마의 베르베나〉는 작곡자 토마스 브레톤⁷⁾이 직접 지휘를 맡아 독립 100주년 기념일 직전인 1910년 5월 23일 초연되었는데, 스페인 군이 패배하고, 추방되어 아르헨티나 해안에서 도망친 것을 축하하는 그 분위기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스페인적이어서, 초연 날과 이후 이틀간의 성대한 행사에 초대된 중요한 손님은 보르본(부르봉)가의 이사벨 공주였다. 그녀의 온전한 이름은 마리아 이사벨 프란시스코 데 아시스 데 보르본 이 보르본(1851-1931)이며, 여왕 이사벨 2세와 남편 돈 프란시스코 데 아시스 이 보르본 사이에 난 딸로 아스투리아스의 공주였다.

스페인 출신의 많은 저명인사들이 아베니다 극장을 거쳐 갔다. 시인이자 극작가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를 시작으로 유명 여배우 롤라 멤브리베스가 뒤를 이었고, 극작가 돈 하신토 베나벤테는 자기 작품 〈이해관계〉(Los intereses creados)에서 연기를 했으며, 여배우 마르가리타 시르구, 가수 미겔 데 몰리나, 카르멘 세비야, 롤라 플로레스, 사리타 몬티엘, 카르멘 아마야, 엘 니노 데 우트레라 등이 있었다. 롤리나 토레스는 아베니다 극장에서 데뷔했다. 극장은 1979년 대화재로 다른 많은 곳과 같이 불타버렸다. 화재가 난 시기에 숨은 뜻이 있는 제목의 작품 〈다가올 대홍수〉가 공연되고 있었지만 막상 닥친 것은 불이었다. 극장은 사고 15년 후 1994년 다시 문을 열었고, 개막 공연을 한 이는 캐러벨선을 타고 온 또 다른 정복자,⁸⁾ 플라시도 도밍고였다.

7) Tomás Bretón(1850~1923). 스페인 작곡가—유크인.



카사 로사다 궁. 시계는 1926년 설치된 것으로 1496년 만들어진 베네치아의 시계탑을 연상시킨다.

오래된 대로를 따라 대통령궁 카사 로사다⁹⁾와 마요 광장¹⁰⁾에서 의회까지 가는 길에는 꼭 둘러봐야 하는 곳들이 많다. 우선 대통령 궁부터 시작해 그곳의 박물관, 야자나무가 심어진 뜰을 보고 그곳을 거쳐간 대통령들을 떠올리면 된다. 분홍색으로 칠해진 대통령궁의 색은 상징하는 바가 있다. 사르미엔토가 파쿰도와 로사스가 속해있던 연방주의자들의 색인 붉은 색과 중앙집권제당(Partido Unitario)¹¹⁾의 흰색을 섞어서 그렇게 칠하라는 결정을 내린 듯 보인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요 광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위에 있는 그리스의 아테나 여신(로마의 미네르바 여신)에 의해 관찰되고, 어떤

8)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은 주로 작은 범선인 캐러벨(carabela)을 이용했다—옮긴이.

9) Casa Rosada,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자 정부 청사.

10) Plaza de Mayo, '5월 광장'이라는 뜻—옮긴이.

11) 1816년에 만들어져 1862년 해체된 정당. 중앙집권제를 주장했다—옮긴이.

의미에서는 감시되어 왔다. 여신상은 전략적으로 50미터 높이에 세워져있고, 아르헨티나화되어 《라프렌사》지(紙)의 등불(La Farola de La Prensa)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¹²⁾

여신상을 쳐다보려면 목을 뒤로 젖혀야 한다. 4000킬로그램의 이 아테나 여신은 한 손에는 전기로 밝히는 햇불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신문 한 장을 들고 있는데, 이는 신문이 무지한 독자를 깨우쳐주는 광명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여신상은 프랑스 조각가 모리스 부발이 만들었으며, 1898년 11월 8일 설치되었다. 1950년대에 페론 대통령이 《라프렌사》지의 재산을 압류한 뒤 철거해버린 때를 제외하면 여신상은 항상 거기에 있었고, 건물이 ‘문화의 집’이 되어버린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마요 광장의 피라미드

아르헨티나 최초의 기념물로 만들어졌으며, 1811년 5월 25일 첫선을 보였다. 페드로 비센테 카네테가 만든 첫 피라미드는 이후 1856년 프릴리디아노 푸에레돈이 만든 두 번째 피라미드 구조 안으로 들어갔다. 피라미드에 대한 두 가지 수수께끼 중, 피라미드에 있는 유일한 금속판에 새겨진 이름인 마누엘 아르티가스와 펠리페 페레이라 데 루세나가 누구인가라는 의문은 완전히 풀렸다. 두 사람은 독립전쟁기 초기에 죽은 군인들로, 당시 매우 존경받다가 이후에 거의 잊혀졌다. 사실상 작은 오벨리스크일 뿐인데 애초에 그것을 왜 피라미드라고 부르게 되었는가하는 두 번째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다.

마요 광장의 작은 피라미드와 카빌도 건물¹³⁾을 뒤로하고, 아베니다 데 마요를 걷다보면 다음과 같은 멋진 볼거리가 있다.

12) 현재 여신상은 아베니다 데 마요 575번지에 있는 문화의 집(Casa de la Cultura)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으며, 과거 그곳은 《라프렌사》지의 건물이었다. 《라프렌사》지가 모레노 가에서 이곳으로 사옥을 옮기는 것을 기념해 여신상 제작을 의뢰했고, 프랑스에서 제작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운송해왔다—옮긴이.

13) 식민지 시절에 시청으로 쓰였고, 현재는 박물관이다—옮긴이.



전통적인 카페 중 하나인 '로스 트레인타 이 세이스 비야레스'

지하철 A라인의 페루 역: 1913년에 개통되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의 지하철역이었다.

중요하고 역사적인 카페들: 홀리오 코르타사르는 599번지에 있는 카페 '엘 런던'의 테이블에 앉아 소설 『복권당첨자들』(Los premios)을 썼다. 카페 '엘 토르토니'는 아베니다 데 마요가 생기기 전 1858년에 이미 문을 열었고, 리바다비아 가 쪽으로 출입구가 나있었다. 카페 '로스 트레인타 이 세이스 비야레스'에서는 풀, 스누커, 체스, 백개먼(backgammon), 트루코 게임을 했다.

일간지 《크리티카》 건물: 아르데코 풍으로 멋지게 장식된 담 안에서 현재는 특정 경찰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 《크리티카》지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로베르토 아를트, 라울 곤살레스 투논 등 그곳에 기고하던 이들의 아우라만 남긴 채 폐간되었기 때문이다.

로레아 광장, 콩그레소 광장, 마리아노 모레노 광장: 이 광장들에는



1923년 완공된 건물로 당시에는 남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바롤로 궁(Palacio Barolo)이라고 부르지만, 처음부터 용도가 사무실 입주를 위해서였다.

프랑스풍의 정원, 분수, 조각상과 조각품, 풍선을 들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으려는 부모들, 노숙자, 높은 물가에 향의 하는 시위자들, 오렌지색 튜닉을 입은 하레크리슈나교¹⁴⁾인들, 그리고 온갖 향기를 풍기는 다양하고 열려있는 삶의 모습들이 항상 있다.

몰리노 과자점: 이름이 몰리노(풍차)인 것은 그곳에 원래 돈 이시드로 로레아의 증기 풍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자점은 1996년에 문을 닫았고, 곧 다시 문을 연다는 소문이 항상 무성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아르 누보 풍의 멋진 정면은 아직도 감동을 주는데, 이는 우리의 두 번째 모국이 기도 한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 프란체스코 테레시오 지아노티의 작품이다. 과자점은 거대하다. 파티장들이 있고, 한창 영업이 잘 되었을 때는 세 개의 지하층에 케이크 제작 공방들, 얼음 공장, 창고, 여러 개의 저장소

14) 1966년 뉴욕에서 만들어진 힌두교 운동의 일종—유킴이.

조각상들

마리아 엘레나 월시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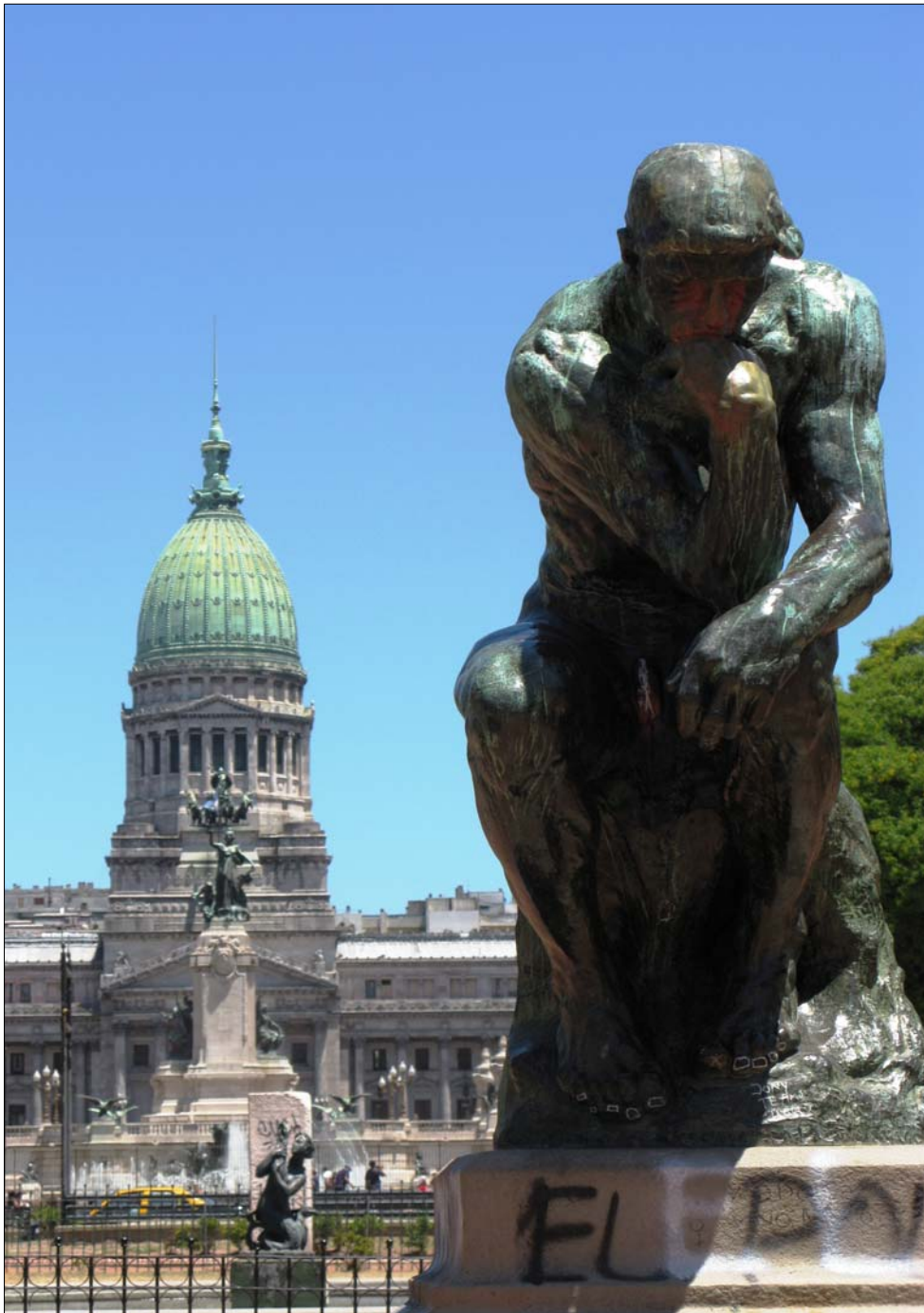
비가 내리면 뭘지 모를 조각상들이 내 눈에 들어온다.
그들은 결코 우산을 쓰고 짝지어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고
형벌처럼 외롭게 자신을 지키고 있다.

광장에 서서 앞으로 닥칠 파국을 알려주며
진지하게 차들과 하녀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본다.
유년기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조상(彫像)들은 결코 웃는 법이 없다.

몸집이 크고 차분한 꼭두각시들
아무도 그들과 놀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나쁜 그림자 하나가 영원히 그들을 지워버리게 되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얼마나 큰 고통을 느낄 것인가.

의회: 아베니다 데 마요의 마지막 지점에 의회가 있다. 약간의 자민
족중심주의를 드러내자면 우리 두 저자한테는 의회 건물이 워싱턴 의회
건물보다 더 장엄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의회를 짓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600만 페소로 잡았는데 3,100만 페
소가 들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황금 궁전이라고 불렀다. 그곳에 얽힌 많
은 이야기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다. 의회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이는
이탈리아 건축가였던 비토리아 메아노였지만 이를 완성하지는 못했다.
1904년 6월 1일 비토리아가 고작 44살이었을 때 자기 부인의 정부였던
한 하인이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런 야만적인 치정극이 일어났음에도

15) María Elena Walsh(1930~2011). 아르헨티나의 문인이자 음악가. 시, 소설, 희곡,
아동문학을 넘나드는 작품 활동을 했으며, 그녀가 만든 수많은 곡들 중에는 메르세데
스 소사나 조양 마누엘 세라트 등이 즐겨 부른 노래들이 포함되어 있다—옮긴이.



국회 맞은편 건물에 있는 조각품. 로맹은 대표작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 때 사용한 주형을 이용해 동일한 작품 2개를 더 만들고 사인까지 했다. 이 조각품이 그 중 하나이다.

불구하고 이상과 질서의 신전인 의회는 완성되었다. 개관식은 1906년 근엄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완성되지 못한 몇몇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이는 40년 뒤 1946년에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의회 건축은 1895년 승인되어 1897년에 시작되었다. 20세기 초 아르헨티나인들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일을 언급할 때 단지 이렇게 말하면 되었다. “의회 건물 짓는 것보다 더 길어.”

[정승희 옮김]

라우라 리나레스(Laura Linares) — 아르헨티나의 여러 잡지와 일간지의 편집자로 활동
정승희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강사